

햇살처럼 따사롭게 나무꾼처럼 우직하게

어린이책 기획번역모임 '햇살과나무꾼'



'햇살과나무꾼'을 이끄는 사람들.

동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햇살과 나무꾼' (대표 강무홍)에게 해마다 찾아오는 어린이날의 의미는 각별하다. 5월 5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는 까닭이다.

4년전 오늘, 한국의국어대 동문 사이인 강무홍(35, 기획실장), 고은주(35, 미국통신원), 박정선(33, 기획실차장)의 세사람이 의기투합하여 번역집단을 꾸린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프리랜서로 번역을 하던 이들은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하다는 것에 착안, 기획번역의 개념정립을 1차 목표로 번역기획사를 차렸다. 특히 일부 고전에 편중된 외국동화의 번역 실태를 직시하고, 1950년대 이후에 나온 외국동화를 타깃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짠 번역료에다 인세 계약상의 핸디캡으로 좌절도 겪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상태이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펴낸 책만도 30여권. 여기에 다 현재 진행중인 책이 100여권에 달한다.

'햇살과나무꾼'의 도서목록에는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창작과비평사), 《다람쥐 아내》(논장), 《개구리 왕자님》(시공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성인용 우화 《인터넷에 들어간 대머리 원숭이》(실천문학사)를 펴낸 바 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듯이 세계의 동화를 소개하면, 어린이들이 햇살처럼 밝게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차장의 작명풀이다.

동화적인 이름과는 별개로 '햇살과나무꾼'에는 만만찮은 면이 엮여있다. 우선, 짜임새 있는 체계와 인력 충원 방법이 그렇다. 현재 정원은 8명으로 기획실 아래 번역 1(영어)·2(일어)팀을 두고 있는데, 인원이 필요할 경우 공개 채용을 통해 해당 언어 전공자를 선발한다.

'햇살과나무꾼'의 강점이자 자랑은 직접 자신들이 번역할 동화를 선택한다는 데에 있다. 이 일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은주씨의 몫이다. 《HORNBOOK》같은 해외 전문 저널의 구독을 통한 세계 아동문학의 흐름 파악과 아울러 미비한 해당국 자료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들 나라의 문화원에 의존하여 고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좋은 번역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말 실력이 전제조건이라는 자각 아래 국어 공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동화 기획번역 분야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이끈 강실장의 한마디는 열악한 번역 풍토에 대한 경종이면서 자신감의 표현이다.

“아무나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일 기자

열린 마음으로,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책 전문 창작집단 '우리누리'



'우리누리' 팀.

우리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누리'는 어린이 책을 기획·창작하는 전문집단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배성호 실장(34)은 어린이 전문출판사인 '산하'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다가 어린이책 출판이 동화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93년 5월, 지금은 객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향선(30), 호원희(30), 김상원(28)과 함께 '우리누리'를 꾸렸다.

“아이들이 좀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죠. 등단한 동화작가들과 어린이 문화에 관심이 많은 문학회 친구들을 우리누리의 구성원으로 모았습니다.”

24세로 나이가 제일 어린 변혜진·정수는 씨를 비롯, 30세로 최고참이 된 최지숙씨 등 총 8명의 '우리누리' 식구들은 글을 쓰는 기술보다는 아이들의 정서에 공감하려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소중한 우리것 재미난 우리 얘기》(전5권, 중앙일보사), 《쑥쑥 술술 우리말 키우기》(전5권, 한길사), 《한국의 예술가 시리즈》(전6권, 우진출판사), 《우리 고장 나의 자랑》(전6권, 대한교과서) 등 모두 39종의 책을 만들어냈다. 현재 진행중인 책도 14종이나 된다.

“어린이 책은 감동과 학습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기획해서 만들어낸 책의 중심 주제가 음악, 시사, 그림, 법, 성교육, 환경, 민속, 불교 등으로 다양한 것도 그 때문이죠.”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눈높이에 맞는 많은 종류의 책을 갖게 하자는 뜻이다. 약 3년 가까이 한길만 꾸준히 걸어오다 보니 이제는 '우리누리가 만든 책'을 고르는 고정 독자까지 생겼다.

물론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다. 어린이 출판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성인 출판물에 비해 어린이 책은 푸대접하는 출판사들의 무성의함과도 싸워야 했다.

'우리누리'는 지난해 구상만 했다가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좌절하고만 두 가지 일을 올해 큰 계획으로 잡고 있다. 한 가지는 공간을 빌려서 '우리누리'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만든 책을 전시·판매하는 '우리누리 도서전시회'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엽서를 통해서 책에 관심있는 어린이나 학부모를 만나는 '독자와의 만남'이다.

“우리누리가 어린이 세상을 의미하는 만큼 주인공인 어린이와의 교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애니메이션 기획에도 손을 대려고 합니다.”

미국의 디즈니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고무하게 인쇄매체만을 고집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다. 어린이 출판산업도 디즈니처럼 캐릭터, 팬시 사업까지 넓힐 수 있는 국제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누리'의 생각이다.

—이현주 기자